

서초구민신문

제431호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http://www.seochogu.co.kr>

TEL 02-3472-2536 FAX 02-3472-2538

나눔으로 문화에 가치 담은 '유중아트센터'

유중아트포럼, 신진작가 발굴, 유중의 밤 콘서트, 크리스티 교육 등 문화사업 전개

정승우 이사장 "문화의 꽃 피워 삶을 풍요롭게...문화일등 서초구 만드는데 보탬 될 것"

개관 8주년 기념식

베트남 교류 특별전

신진작가의 산실, 예술가들의 꿈과 재능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토양을 설립목적으로 서초구에서 최초로 문을 연 '유중아트센터'(이사장 정승우)가 10월 30일 개관 8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유중아트센터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를 통해 발굴한 유망 신진작가에 대한 시상을 비롯해 매년 개관을 기념해 개최하는 특별 교류전, 공연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승우 이사장을 비롯해 개관기념 베트남 특별 교류전을 주관한 김태곤 사이공 이노베이션 허브 국제고문, 윤진섭 평론가, 최두수 유니온아트페어 감



정승우 이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유중아트센터에서 발굴한 신진작가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독, 김윤희 소더비 인스티튜트 한국 대표,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최운정 서초미술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과 주민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승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유중아트센터는 서초구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문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

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면서 "생활 속 문화를 꽃피우고 서초구가 명실공히 문화구로 거듭나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정승우 이사장은 또 "미술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양분을 주고 비와 햇빛이 되는 것이 비영리 공익재단인 유중아트센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서초구는

서리풀터널 개통과 음악문화지구 지정으로 세계적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여건이 충족되었다. 유중아트센터는 문화예술인재 육성과 대중문화의 발전,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일관성을 갖고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 시스템 아래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관 기념 특별전을 마련한 김태곤 고문은 "수교 27년을 맞는 한국과 베트남은 그동안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며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나는 등 1천억 불 교역을 달성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활발한 동반관계에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는 시작 단계에 있다. 이번 전시회가 두 나라의 민간 예술 교류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진섭 평론가는 축사에서 "시민들의 생활

에 문화예술이 뿌리내린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인식은 깊이가 다르다. 매년 많은 미술지망생들이 배출되지만 자신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문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사업을 전개하는 유중재단에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중아트센터는 그동안 국내 최초의 스타트업 로펌 법창의센터를 개설하고 청년예술가들의 미래와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토론의 장인 유중아트포럼, 신진작가 발굴 및 작품소개, 공공기관 전시, 유중의 밤 콘서트, 크리스티 등 해외유명기관 초청 교육, 오프라인 경매, 커피빈 전국 신진작가 작품전시, 만화전시, 아트페어, 방과후 미술프로그램 등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유중아트센터는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작가에 대한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전은숙(회화), 최우수상 오흥배(회화), 장려상 김만지(회화), 노연이(회화), 박지수(회화), 서지우(조각), 채효진(회화).